



하늘 마을로 간 택배

김경미 글, 김무연 그림

책 읽은 날짜: 년 월 일

이름:

[책 소개]

관련 교과

- 1학년 2학기 국어 10.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상상해요
- 2학년 1학기 국어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 2학년 2학기 국어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 3학년 1학기 국어 10. 문학의 향기
- 3학년 2학기 국어 9. 작품 속 인물이 되어

핵심 키워드

#이별 #죽음 #성장 #사랑 #가족

대상 연령

8세 이상

책 내용 미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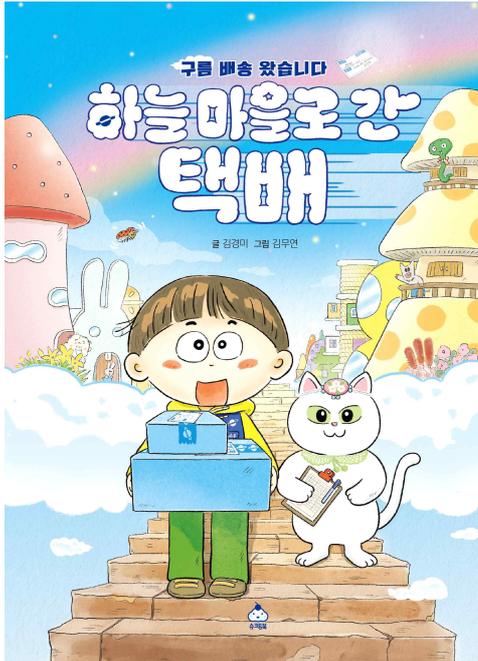
우리는 살면서 가족이나 친구 같은 소중한 이를 잃는 경험을 합니다. 아홉 번째 생일을 맞은 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와 갑작스러운 이별을 경험한 시우는 아빠와 단둘이서 생일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빠의 택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게 되고, 하는 수 없이 시우는 아빠를 따라 배달 길에 나서지요. 낯선 동네까지 오게 된 시우. 궁금한 마음에 차 문을 여는 순간, 아빠는 온데간데없고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고 꼭 구름 위에서 서 있는 느낌! 시우는 어리둥절하기만 해요. 그때 말하는 고양이가 나타나 시우에게 자신의 물건을 가져왔느냐고 묻습니다.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이곳은 '하늘 마을'이며, 하늘 마을에서는 그곳에 온 지 1년 되는 날, 누구나 원하는 물건 하나를 택배로 받는다면데요. 또 오늘 하늘 마을의 택배 기사는 바로 시우라며 '빠른 배송'을 재촉하지요. 시우는 얼결에 택배 상자를 들고 고양이의 집으로 향합니다. 고양이가 주문한 물건은 '꿈 카메라(꿈카)'. 고양이가 꿈카로 영상을 찍어 이승의 집사에게 전송하면, 그날 밤 집사의 꿈에 자신이 찍은 영상이 나타난다며 고양이는 한껏 단장을 하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다음 배달 장소로 가자, 인상 좋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할머니가 택배 상자에서 꺼낸 물건은 '이승 텔레비전', 이승의 모습을 생생하게 중계해 주는 기계입니다. 할머니는 이승 텔레비전을 통해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며 자신이 없어도 씩씩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위로하지요.

마지막 상자는 엄청나게 큰데, 상자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시우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물건을 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 시우 엄마가 하늘 마을에서 택배를 주문한 것인데요, 시우 엄마가 주문한 커다란 택배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책을 읽기 전 생각 펼치기

1. 《하늘 마을로 간 택배》의 표지를 살펴보고, 아래 질문의 답을 적어 보세요.



- 표지 그림과 제목을 보고 책의 내용을 상상해 보세요.
 - ▶ 예) 주인공이 하늘 마을로 물건을 배달하러 간다.

- '택배'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 ▶ 예) 설렌다, 빠르다 등.

- 표지 그림을 보면 주인공 옆에 고양이가 두 발로 서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모습들이 표지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이런 장면들을 찾아 이야기해 보세요.
 - ▶ 예) 집들이 구름 위에 떠 있다 등.

- 주인공은 앞으로 '하늘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 ▶ 예) 하늘 마을 주민들에게 택배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된다.

- '로켓 배송', '샷별 배송'이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있나요? '로켓 배송'과 '샷별 배송'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표지의 '구름 배송 왔습니다'는 문구는 어떤 의미일지 이야기해 보세요.
 - ▶ 예) 로켓 배송: 로켓처럼 빠르게 배달한다는 뜻.

책을 읽으며 생각 들여다보기

2. 아래 《하늘 마을로 간 택배》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이야기 순서대로 번호를 적은 뒤 어떤 그림인지 설명해 보세요.

	<p>1</p>	<p>아홉 번째 생일을 맞은 시우. 아빠와 단둘이서 생일을 보내야 하는데, 아빠의 택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게 되고, 하는 수 없이 시우는 아빠를 따라 낮선 동네까지 배달을 오게 됩니다.</p>
		
		
		
		
		

	7	<p>“시우야, 시우야!” 아빠가 자신을 찾는 소리에 시우는 엄마에게 아빠를 데려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빠도 엄마를 보면 좋아할 거라며 엄마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 하늘 마을의 문을 벌컥 열지요.</p>
---	---	---

3. 주인공 시우는 아빠를 따라 배달 길에 나섰다 낮선 동네까지 오게 되고, 궁금한 마음에 차 문을 여는 순간, 새로운 세계(하늘 마을)를 만나게 됩니다. 또, 아빠가 자신을 찾는 소리에 벌컥 하늘 마을의 문을 여는 순간,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처럼 ‘문’은 우리를 다양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현관문, 엘리베이터 문, 교문, 교실 문 등 다양한 문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 가고 싶은 판타지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현실 세계의 ‘자동차 문’)



(판타지 세계의 ‘집 문’)





(다양한 '문')



(내가 상상하는 '판타지 세계')

4. 다음은 시우가 하늘 마을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풍경을 묘사한 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시우가 차 문을 벌컥 열었을 때였어요.

“엇!”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온통 하얗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날면서 창밖을 내다본 풍경처럼요.

시우는 주위를 □□□□ 살폈어요.

“아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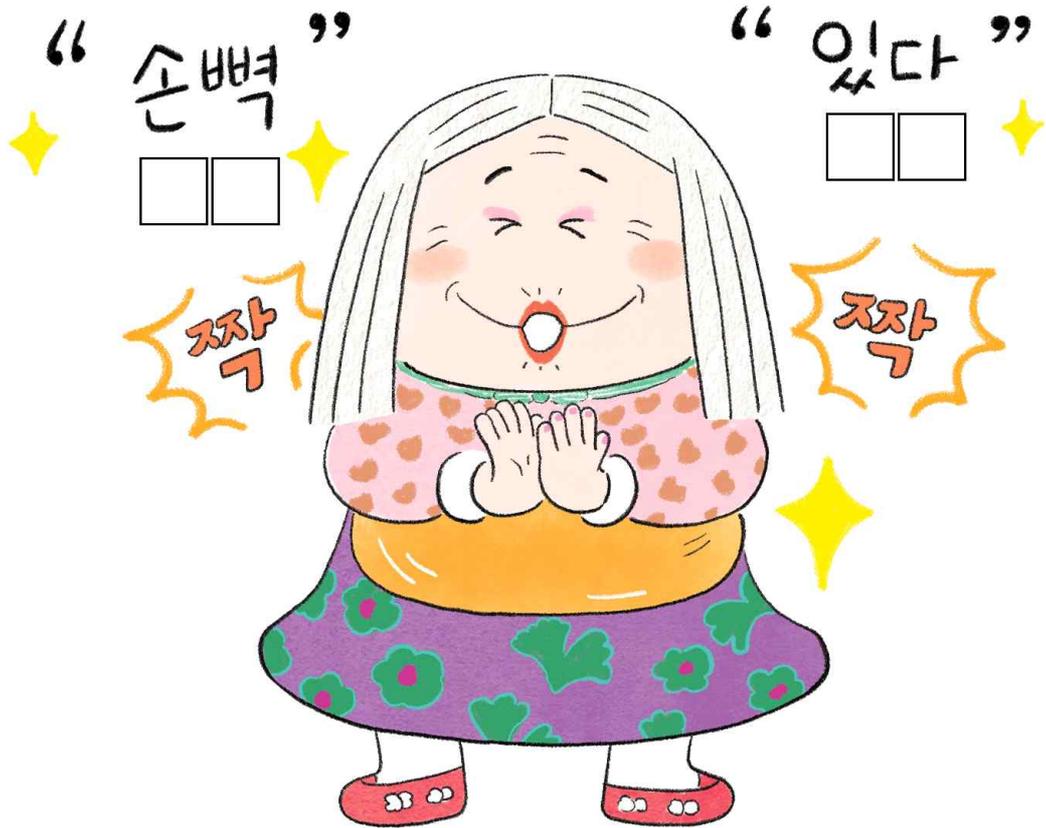
긴장한 목소리로 아빠를 불러 봤지만 아빠는 대답이 없었어요. 시우가 조심스럽게 트럭에서 내렸어요. 발아래로 □□□□한 하얀 □□이 깔린 것 같았어요. 시우는 조심스럽게 한 발을 떼 보았어요. 마치 □□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지요.

- □□□□ : 사방을 이리저리 살피는 모양.
- □□□□한 : 덩이진 물건이 말랑말랑하고 몹시 매끄러운.
- □□ : 양털 따위의 털을 표면에 보풀이 일게 짠 두꺼운 모직물. =용단.
- □□ : 공기 중의 수분이 영기어서 미세한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의 덩어리가 되어 공중에 떠 있는 것.

5. 이야기 속에서 시우는 세 개의 택배 상자를 배달하게 됩니다. 차례대로 시우가 누구에게 무엇을 배달했는지 아래 표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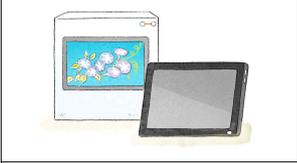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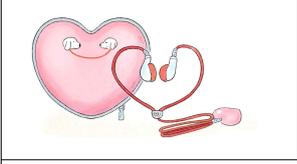
	주문자	택배	택배를 주문한 이유
첫 번째 상자	 주문자:		예) <u>하늘 마을에서</u> <u>잘 지내고 있는 모</u> <u>습을 '꿈 카메라'에</u> <u>담아 이승의 친구에</u> <u>게 보내기 위해</u>
두 번째 상자	 주문자:		<hr/> <hr/> <hr/> <hr/> <hr/> <hr/>
세 번째 상자	 주문자:		<hr/> <hr/> <hr/> <hr/> <hr/> <hr/>

6. 옆집 할머니는 종종 특별한 주문을 외칩니다. 할머니는 주문을 외치면서 '있다고 상상하면 그게 뭐든 정말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옆집 할머니의 주문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책 속에서 찾아 넣으세요.



□□ : 손이나 물건 따위를 부딪쳐 소리 나게 하고.
 □□ : 어떠한 상태라고 인정하거나 사실인 듯 받아들이고.

7. 하늘 마을에서는 마을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 원하는 물건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 마을의 이장은 마을에 온 지 1년 된 주민들에게 책자를 나누어 주며 책자 속 물건을 하나 골라 주문하라고 하는데요, 책자 속 물건의 사진과 이름, 한 줄 소개를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그때, 그 맛 사탕		꿈을 찍어 보낼 수 있습니다.
기억 지움 장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 드립니다.
이승 텔레비전		내 인생을 멋지게 편집해 드립니다.
내 인생 영상 비디오		이승의 나쁜 기억을 지워 드립니다.
꿈 카메라		이승에 남은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이어폰		잊지 못하는 순간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 생각 넓히기

8. 이 책의 에필로그에는 시우 엄마가 주문한 택배가 하늘 마을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순서대로 배치해 보세요.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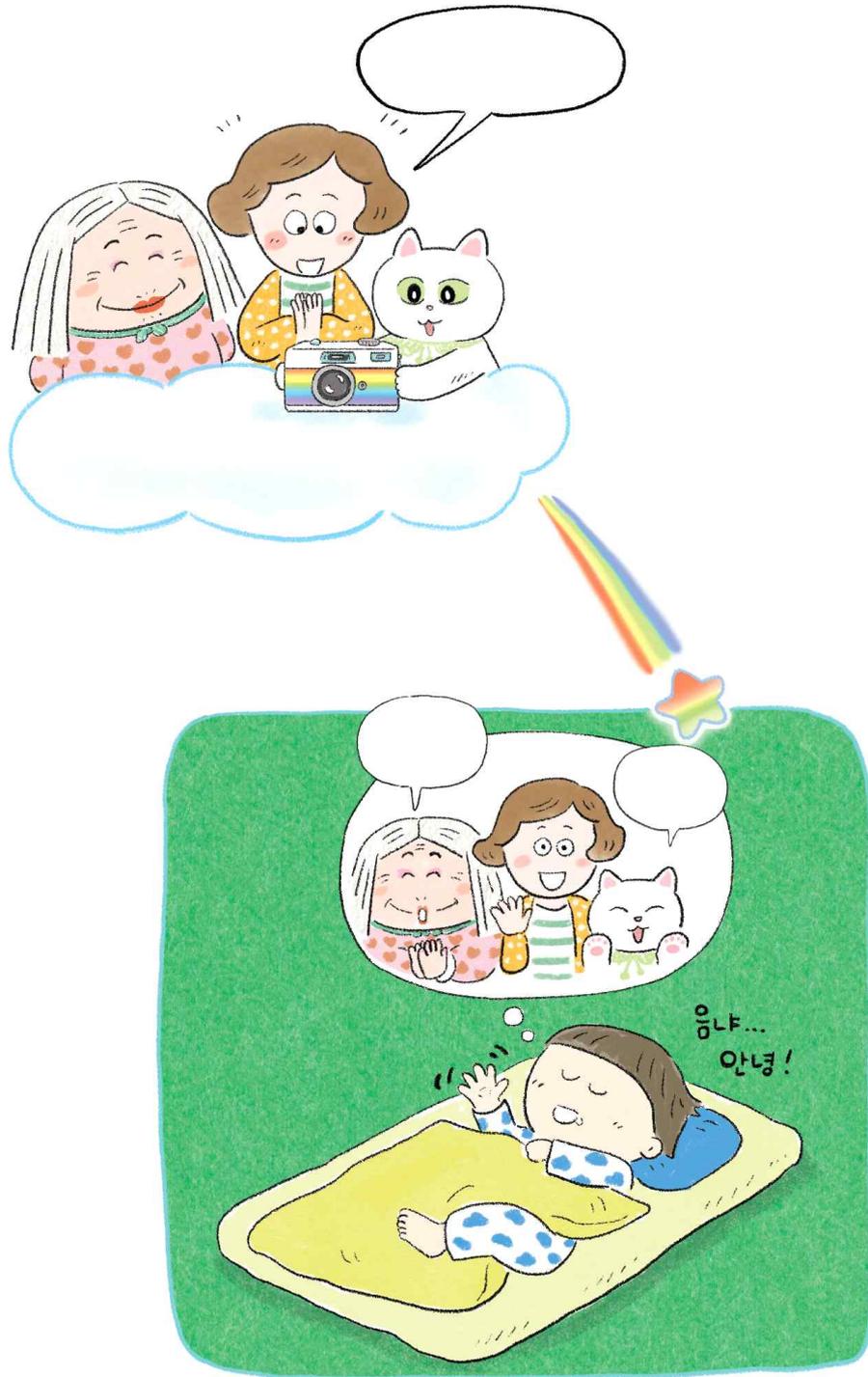
()



(6)



9. 시우 엄마는 <꿈을 찍는 카메라>를 통해 시우의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승 텔레비전>으로 시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다음 말풍선에 어울리는 대사를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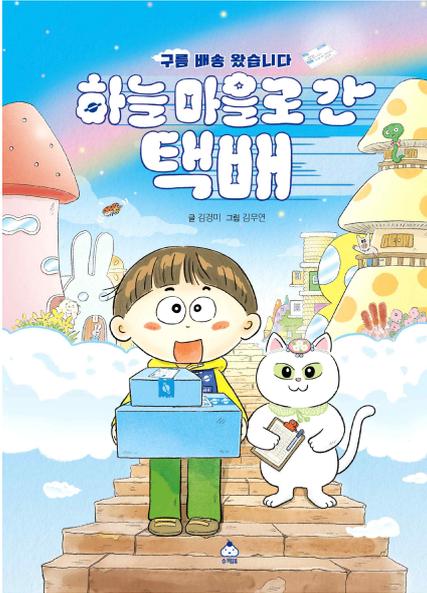
10. 하늘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상상해 그림으로 그리고, 물건의 이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물건이 왜 필요한지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물건의 이름과 이미지	물건의 용도

예시 답안

책을 읽기 전 생각 펼치기]

1. 《하늘 마을로 간 택배》의 표지를 살펴보고, 아래 질문의 답을 적어 보세요.



- 표지 그림과 제목을 보고 책의 내용을 상상해 보세요.
 - ▶ 주인공이 하늘 마을로 물건을 배달하러 간다.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판타지 동화 같다.

- ‘택배’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 ▶ 설렌다, 기대된다, 행복하다, 빠르다,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선물, 칭찬, 축하 등.

- 표지 그림을 보면 주인공 옆에 고양이가 두 발로 서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모습들이 표지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이런 장면들을 찾아 이야기해 보세요.
 - ▶ 집들이 구름 위에 떠 있다/ 동물들이 모두 두 발로 서 있다 / 계단이 하늘 위에 떠 있다 등.

- 주인공은 앞으로 ‘하늘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 ▶ 하늘 마을의 택배 기사가 되어 택배 물건을 배달한다. 두 발로 서서 걷는 고양이와 함께!

- ‘로켓 배송’, ‘샷별 배송’이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있나요? ‘로켓 배송’과 ‘샷별 배송’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표지의 ‘구름 배송 왔습니다’는 문구는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 ▶ 로켓 배송: ‘로켓’처럼 빠르게 물건을 배달한다는 뜻.
 - ▶ 샷별 배송: 금성이 새벽하늘에 보일 때를 ‘샷별’이라고 하므로 아침에 눈 뜨면 물건을 사

용할 수 있도록 새벽녘에 배달한다는 뜻.

▶구름 배송: 구름을 타고 하늘 위로 물건을 배달한다는 뜻.

책을 읽으며 생각 들여다보기

2. 아래 《하늘 마을로 간 택배》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이야기 순서대로 번호를 적은 뒤 어떤 그림인지 설명해 보세요.

	<p>1</p>	<p>아홉 번째 생일을 맞은 시우. 아빠와 단둘이서 생일을 보내야 하는데, 아빠의 택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게 되고, 하는 수 없이 시우는 아빠를 따라 낮선 동네까지 배달을 오게 됩니다.</p>
	<p>5</p>	<p>할머니는 이승 텔레비전(이승의 모습을 중계해 주는 기계)을 통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영감이 자신만 그리워하며 사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늘 마을로 오면 그때 영감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이야기하지요.</p>
	<p>4</p>	<p>다음 배달 장소는 바로 사탕이네 옆 할머니네 집입니다. 사탕이가 옆집의 문을 똑똑 두드리자 할머니가 반갑게 문을 열고 나옵니다. “택배 배달 왔는데요.” 시우는 조심스럽게 택배 상자를 건넵니다.</p>
	<p>3</p>	<p>말하는 고양이 ‘솜사탕’이 주문한 물건은 ‘꿈 카메라(꿈카)’. 꿈카로 영상을 찍어 이승의 친구에게 전송하면, 친구의 꿈에 자신이 찍은 영상이 나타난다며, 사탕이는 한껏 꾸미고 촬영을 시작합니다.</p>
	<p>6</p>	<p>마지막 택배 상자를 주문한 사람은 시우 엄마입니다. 엄마는 시우의 아홉 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직접 만든 딸기 케이크를 선물 합니다. 옆집 할머니와 고양이는 시우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요.</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 font-size: 24px;">2</p>	<p style="color: red;">세상이 온통 하얗고 꼭 구름 위에 서 있는 것만 같은 느낌에 어리둥절한 시우. 그때 말하는 고양이가 나타나 오늘 택배 상자를 가져다주기로 한 기사님이 바로 시우라며 자신의 물건을 가져왔느냐고 묻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 font-size: 24px;">7</p>	<p style="color: red;">“시우야, 시우야!” 아빠가 자신을 찾는 소리에 시우는 엄마에게 아빠를 데려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빠도 엄마를 보면 좋아할 거라며 엄마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 하늘 마을의 문을 벌컥 열지요.</p>

3. 주인공 시우는 아빠를 따라 배달 길에 나섰다 낯선 동네까지 오게 되고, 궁금한 마음에 차 문을 여는 순간, 새로운 세계(하늘 마을)를 만나게 됩니다. 또, 아빠가 자신을 찾는 소리에 벌컥 하늘 마을의 문을 여는 순간,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처럼 ‘문’은 우리를 다양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현관문, 엘리베이터 문, 교문, 교실 문 등 다양한 문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 가고 싶은 판타지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현실 세계의 '자동차 문')



(판타지 세계의 '집 문')





(다양한 '문')



(내가 상상하는 '판타지 세계')

(학교 가기 싫은 날, 투덜대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땡' 1층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눈앞에 마법의 학교가 펼쳐진다. 꼭 영화 <해리포터> 속 호그와트 같은!)

4. 다음은 시우가 하늘 마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시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묘사한 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시우가 차 문을 벌컥 열었을 때였어요.

“엇!”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온통 하얗어요. 비행기를 타고 날면서 창밖을 내다본 풍경처럼요.

시우는 주위를 **돌레 돌레** 살폈어요.

“아빠!”

긴장한 목소리로 아빠를 불러 봤지만 아빠는 대답이 없었어요. 시우가 조심스럽게 트럭에서 내렸어요. 발아래로 **몽글몽글**한 하얀 **카펫**이 깔린 것 같았어요. 시우는 조심스럽게 한 발을 떼 보았어요. 마치 **구름**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지요.

- **돌레 돌레** : 사방을 이리저리 살피는 모양.
- **몽글몽글**한 : 덩이진 물건이 말랑말랑하고 몹시 매끄러운.
- **카펫** : 양털 따위의 털을 표면에 보풀이 일게 짠 두꺼운 모직물. =융단.
- **구름** : 공기 중의 수분이 엉기어서 미세한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의 덩어리가 되어 공중에 떠 있는 것.

5. 이야기 속에서 시우는 세 개의 택배 상자를 배달하게 됩니다. 차례대로 시우가 누구에게 무엇을 배달했는지 아래 표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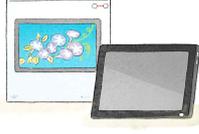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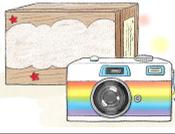
	주문자	택배	택배를 주문한 이유
첫 번째 상자	 주문자: 솜사탕(고양이)		하늘 마을에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꿈 카메라'에 담아 이승의 친구에게 전송하기 위해. 앞으로도 친구의 꿈에 자주 나오겠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두 번째 상자	 주문자: 옆집 할머니		이승의 모습을 생생하게 중계해 주는 '이승 텔레비전'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또 자신이 없어도 씩씩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
세 번째 상자	 주문자: 시우 엄마		갑자기 이별하게 된 아들 시우에게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또 아들이 오해를 풀고 더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6. 옆집 할머니는 종종 특별한 주문을 외칩니다. 할머니는 주문을 외치면서 '있다고 상상하면 그게 뭐든 정말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옆집 할머니의 주문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책 속에서 찾아 넣으세요.



치고 : 손이나 물건 따위를 부딪쳐 소리 나게 하고.
치고 : 어떠한 상태라고 인정하거나 사실인 듯 받아들이고.

7. 하늘 마을에서는 마을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 원하는 물건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 마을의 이장은 마을에 온 지 1년 된 주민들에게 책자를 나누어 주며 책자 속 물건을 하나 골라 주문하라고 하는데요, 책자 속 물건의 사진과 이름, 한 줄 소개를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그때, 그 맛 사탕		꿈을 찍어 보낼 수 있습니다.
기억 지움 장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 드립니다.
이승 텔레비전		내 인생을 멋지게 편집해 드립니다.
내 인생 영상 비디오		이승의 나쁜 기억을 지워 드립니다.
꿈 카메라		이승에 남은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이어폰		잊지 못하는 순간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 생각 넓히기

8. 이 책의 에필로그에는 시우 엄마가 주문한 택배가 하늘 마을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순서대로 배치해 보세요.

(1)



(3)



(4)



(2)



(5)



(6)



9. 시우 엄마는 <꿈을 찍는 카메라>를 통해 시우의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승 텔레비전>으로 시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다음 말풍선에 어울리는 대사를 만들어 보세요.





10. 하늘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상상해 그림으로 그리고 물건의 이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물건이 왜 필요한지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요.

물건의 이름과 이미지	물건의 용도
<p>▶ 엄마 냄새 향수 (또는 아빠 냄새 향수, 동생 냄새 향수, 친구 냄새 향수 등)</p>	<p>자기 전에 베갯잇이나 이불에 엄마의 냄새가 나는 향수를 뿌리고 자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엄마 품에 꼭 안겨 자는 느낌이 들 거 같다.</p>

11. 소중한 사람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아래 편지지에 마음을 담아 전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쓴다면 상대가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마음이 전해질 거예요.

보고 싶은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 하윤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엄마는 요즘 할머니가 꿈에 자주 나온다고 좋아하세요. 꿈에 할머니가 딸기 케이크 전문점을 차렸는데, 인기가 아주 많대요. 케이크가 다 팔리면 할머니는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손뼉 치고! 있다 치고!"를 외치신다고요.

엄마가 꿈 이야기를 하자 할아버지는 "여전하구만!" 하며 웃으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좋아하던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시다 열혈 팬이 되셨어요. 그 뒤로 노래 교실도 열심히 다니시고, 엄마에게 부탁하셔서 콘서트도 다녀오시고, 심지어 구청에서 하는 노래 대회도 나가셨는데, 무려 2등 상을 받으셨다니깐요! 할아버지는 그날 살짝 눈물을 보이셨어요. 할머니가 곁에 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더니 금세 "손뼉 치고! 마누라 있다 치고!"를 외치셔서 모두를 웃게 만드셨지요.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저는 할머니가 제 방문을 별걱 열고 들어와 "하윤아, 할머니 왔다!" 하고 웃으실 것만 같아요. 할아버지도 엄마도 아빠도 그렇대요.

그러니 오늘 밤엔 문을 별걱 열고 제 꿈에 나타나 주시겠어요? "하윤아, 할머니 왔다!" 하고요. 아니다, 오늘 밤엔 먼저 할아버지 꿈에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했던 가수의 노래를 들려 달라고 하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그 가수보다 더 잘 부르시는 거 같거든요.

할머니, 나는 가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아무리 "손뼉 치고! 할머니 있다 치고!"를 외쳐도 허전함이 달래지지 않아요. 할머니가 좋아하던 노래를 몰래 들어 봐도요.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 같아서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도 그럴 때가 있대요. 참, 그 친구는 딸기 케이크를 엄청 좋아해요!

언제 한번 친구랑 할머니 케이크 가게에 놀러 갈게요! 물론 꿈에서요.

그럼 꿈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할머니의 사랑하는 손녀 하윤이 드림